

‘어비스’, 복합 장르로 시청자들 눈길 사로잡다



드라마 '어비스'가 판타지, 스릴 라, 로맨스 코믹 등의 복합 장르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주

주연 박보영·안효섭의 조합도 신선

연 박보영과 안효섭의 조합 또한 신선했다.

지난 6일 첫 방송된 tvN 새 월화 드라마 '어비스'는 영혼 소생 구슬 어비스를 통해 생전과 180도 다른 반전 비주얼로 부활한 20년 지기 절친 고세연과 차민이 자신을 죽인 살인자를 쫓는 드라마.

이날 방송에서는 주인공 차민과 고세연이 죽음을 맞았다가 어비스로 인해 영혼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재벌 2세 차민(안세하 분)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외모를 이유로 바운을 선언하자 큰 상실감에 빠졌다. 죽을 마음 없이 폐기로 옥상에 올라갔지만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어이없게 죽은 차민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의문의 남자(서인국)와 여자(정소민)가 나타나 구슬 어비스

로 차민을 살려냈다. 어비스는 죽은 것들은 모두 살려주는 구슬이었다. 단 영혼이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특성이 있었고, 주님 차민은 미남 차민(안효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차민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사람은 첫사랑 고세연(김사랑)이었다.

고세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재직 중인, 게다가 외모까지 아름다운 완벽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고세연은 미스터리한 연예인사건을 조사하면서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집 안에서 살해당했다. 경찰은 마지막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차민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차민은 열렬히 죽기는 신세가 됐다. 이후 고세연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던 차민은 어비스에 희망을 걸었고, 죽은 고세연은 새로운 고세연(박보영)의 모습으로 부활했다. 두 사람은 비くん

모습으로 정예식장에서 마주쳤다.

첫방부터 휘몰아친 전개였다. 차민은 결혼식 전날 잠적한 여자친구로 인해 실의에 빠져 옥상에 올라갔고, 외계인이 저지른 빙소리로 살생 긴 얼굴로 부활했다. 고세연 역시 자신의 집에서 풀연 살해를 당했다. 차민의 죽음은 판타지였고, 고세연의 죽음은 미스터리였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일상적인 이야기는 밝고 코믹스러웠다. 장르가 너무 많다는 우려는 지운듯 했다.

다만 스토리상 첫 회 특별 출연자가 몰린 탓에 다소 산만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력 논란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후반부에 강렬하게 등장한 박보영, 그리고 안효섭의 존재감은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영혼의 모습으로 부활한 뒤 펼쳐지는 이야기는 2회부터 시작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2년 만에 '오나라' 제작진과 돌아온 박보영의 선택이 기분 좋은 성공으로 끝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5주 연속 시청률 1위, 月예능 최강자



KBS 2TV '안녕하세요'가 5주 연속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5월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내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412회 2부 시청률은 5.4%(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5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는 16살 아들이 고민이라는 30대 싱글맘의 "신종 사춘기인가요" 사연이 소개됐다.

고민 주인공은 필요한 것이 있어도 시달리는 말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다.

그런 사춘기 아들 때문에 답답하다는 사연을 들은 이영자는 "이제 무슨 사춘기야"라고 말하며 의아해 했고, 처음 접해보는 고민에 홍당해

하던 출연진들은 "그게 뭐지?", "진짜 신종이네요"라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고민 주인공은 차리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싫으면 싫다고 말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영혼 없이 대답하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등장한 아들은 혹시나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나오지 않았는지를 묻는 치티의 질문에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고치고 싶어 출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들이 고민 주인공의 전남편에게 맡겨진 이후부터 성격이 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년 전, 아들이 전남편에게 가게 된 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고민 주인공은 아들에게 '엄마와 악속을 지키지 않 았기 때문이다'고 말했고, 이 말들을 아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이후로 엄마의 말을 무조건 듣게 되었다고 해 안타

까움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죽을 뻔한 일을 겪은 이후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립했으면 하는 바람에 공부를 하기 싫다는 아들을 바로 자퇴시키는 등 물이붙이는 고민 주인공의 태도에도 문제 가 있었다.

신동엽은 이런 고민 주인공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로 인해 아들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또한, 이영자

는 "아들에게는 문제없다. 어머니가 문제인 것 같다"라면서 고민 주인공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 더"며 고민 주인공을 응원해 주었다.

고민 주인공은 MC들의 조언과 위로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렸고, "瘋계 아닌 평계를 대서 미안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이에 아들은 "아빠 닮았다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드러냈고, "앞으로 솔직하게 감정을 이야기할 테니 미안해하지 마시라"며 고민 주인공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깊은 사랑을 확인한 이웃한 모자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봄밤'을 5월 22일 첫 방송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난해 대세남으로 떠오른 정해인의 지금이 있게 그의 인기를 최고로 끌어올린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안판석 감독과 김은 작가가 '봄밤'의 제작진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들의 재회 사설만으로도 많은 팬들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보다 더욱 '봄밤'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는 정해인이 이번에는 어떤 로맨스 연기로 여성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울지가 조미의 관심사이다. '봄밤'은 어느 봄날, 두 누나가 오롯이 사랑을 찾아가는 설렘 가득한 로맨스 드라마를 표방한다. 여기서 정해인은 한 여자를 만난 후 잊고 살던 모든 감정들이 되살아난 남자의 미묘한 감정선을 현실감 있게 연기할 예정이다. 게다가 함께 할 여주인공으로 '공감 연기'로 호평받는 한지민이 기용돼 두 사람의 어떤 시너지가 낼지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진구부터 정해인까지 조만간 지상파 수목극장이 신흥 남주 리인으로 대결이 펼쳐지면서 박빙이 예고된다.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지만, 맞불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젊은피' 여진구X정해인X김명수, 지상파 수목대결



지상파 안방극장이 최근 '젊은피' 수혈로 분위기를 확실히 바꾸고 있다. 특히 5월 수목극장은 신홍태세들이 로맨스물로 찾아와 안방 예술을 들뜨게 할 작정이다.

가장 먼저 관심을 모으는 배우는 15일 첫 방송하는 SBS '절대그이'의 여진구다. 올초 tvN '왕이 된 남자'로 자신의 진격을 재입증한 여진구가 로맨틱 멜로물로 여심을 겨냥한다. 일본문화를 원작으로 한 '절대그이'는 사랑의 상처로 차운 강철 심장이 되어버린 특수 분장사 대마(방민아 분)와 빨갛게 달아오른 뜨거운 핑크빛 심장을 가진 연인용 피규어 영구(여진구 분)가 펼치는 이야기.

여기서 여진구는 사랑을 팀구하

는 완벽한 연인 피규어 '그이' 제로나인 역을 맡았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빛어낸 연인용 피규어로, 오직 여자친구라고 인식된 상대를 향해 일관된 순정을 쏟아내도록 프로그램 돼있다는 설정이어서 여진구가 그려낼 캐릭터 연기가 궁금해진다.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어엿한 성인배우로 존재감을 확실히 한 여진구는 KBS2 '오렌지 마말레이드'(2015), tvN '써클: 이어진 두세계'(2017) 등을 통해 다시 만난 세계'(2017) 등을 통해 판타지물에 대한 경험이나 충분하다. 이번에도 여진구의 믿고 보는 연기가 기대된다.

'절대그이'와 맞붙는 KBS2 '단, 하나님의 사랑' 역시 남자주인공 김명수

명수가 천사로 등장하는 판타지 로맨스물이어서 비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믿지 않는 발레리나(신혜선 분)와 큐피드를 자처한 사고뭉치 천사(김명수 분)의 판타스틱 천상로맨스 발레리나와 천사의 민남이라는 색다른 소재뿐 아니라 막강 비주얼을 선사하는 드라마를 예고하면서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천상계에서 내려온 환상적인 비주얼로 김명수의 미스크가 빠 어울리는 티저가 공개됐기 때문.

전작 JTBC '미스 함무라비'에서 는 임바른이라는 캐릭터명만큼이나 유통과 모범적인 현실 캐릭터를 그렸던 김명수가 이번에는 180도 다른 연기를 펼쳐서도 기대가 모아진다.

그가 맡은 천사 김단 역은 장난기 많은 사고뭉치로 성스러운 천사였던 여진구에서도 어디로 뭘지 모르는 반전 매력을 뿐만 아니라, '미스 함무라비'는 법정물이었던 믿음 러브리아이가 결기지였다면, 이번에는 로맨스를 전면에 내세워 김명수의 멜로 연기가 제대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MBC는 새 수목극으로 정해인의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음력 4월 4일)



▶재능이 뛰어나면 대성할 수 있으나 남에게 번감을 사니 주의하라. 항상 목표를 높이 정해 전진하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ㅅ, ㅇ, ㅊ 성씨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이성적인 태도를 분명히 가지라. 파란색이 길하다.



▶독점욕이 강한 탓에 질투심으로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사랑을 성취하기 힘드니 마음을 다스리라. 3, 8, 12월생은 유통성이 모자라다. 신념이 강한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애정을 가지라. 2, 4, 6월생은 특히 삼각라.



▶성씨는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순서를 따라 전진하라. 적을 만들면 불리하니 모든 사람과 친분을 두텁게 하라. 의류, 식품, 요식업 종사자는 길하다. 2, 3, 5, 6월생은 검은색을 절대로 피하라.



▶1, 5, 9월생 인정 많고 한번 믿은 사람을 끝까지 믿는 것은 좋으나 회생하면 서까지 의지하지 말라.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빨리 깨닫고 위험 수위에 다다르기 전에 뒤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믿고 무슨 일든 협력하라. 색안경 끼고 보면 누구도 내 사람 이 될 수 없다. 2, 7, 10월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열심히 살고 다듬으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 언행을 조심하라.



▶고집을 꺾고, 계산적인 생각은 나중으로 미루자. 잘 될 때는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실패할 처지에 놓이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3, 5, 9월생 동, 남쪽에 길이 있다. 파란색이 길하다.



▶단단함을 애써 감추려 들지 말고 친구, 동료들과 어우러져 가을 내용을 마시며 마음의 창을 열라. 1, 5, 6, 8월생 남에게 나를 잘 보일 재주는 있지만, 천부적인 인내력으로 견실한 삶을 산다. 보험계, 운송업, 의류업 종사자는 길하다.



▶쉽게 마음의 문 열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라. 2, 8, 11월생은 쓸쓸하고 허무해 땀 곳에 눈 돌린다. ㄹ, ㆁ, ㅊ 성씨는 우유부단하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나를 비관하지 말라. 적극적인 성격이 가지려고 노력하라.



▶지위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허루아천에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1, 2, 7, 11월생은 배우자를 하늘처럼 믿고 살 때 가정사와 사업 모두 순조롭다. 증권, 경마 등 위험성이 따르는 투기는 절대 금물이다. 붉은색이 행운의 색이다.



▶상대방 마음을 편안히 해주고 내조나 외조로 용기를 주라. 한가롭게 사랑 탐정할 때인가. 지금은 나를 억제하고 안내할 때다. 새로운 길 찾는다고 행복이 보장될 수 없는 법이다. 4, 5, 9월생 남의 말에 현혹 되지 말고 현 생활에서 안정을 찾으라.